메트로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NEWS p/02

"무료신문 원래 내 창업 아이템"

메트로신문 신년 인터뷰

박 원 순 서울시장

출근길 시민 희망 메신저 잘될 거라는 믿음 여전해

"아침을 여는 메트로신문은 즐거움을 주는 저의 동반자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늦었지만 메트로신문 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것으로 유명한 그는 15년전쯤 스웨덴에서 메트로신문을 접한 일화를 공개했다.

"여행을 다니다 우연히 무료 신문을 보게 됐죠. 신문을 집어들자마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 만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얼마 안 가 서울에서도 메트로신문의 창간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박 시장과의 첫 만남은 시장실에서 이뤄졌다. 잘 정리되고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벽면은 온통 시민들의 민원이 담긴 쪽지들로 가득했고, 책상은 정책자료집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메모광으로 유명한 박 시장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희망노트'로 불리는 그의 수첩은 벌써 1800권을 넘었다.

"아이디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저의 생각의 기본은 다 이 수첩에서 나와요. 서울시 공무원과 보좌관들에게 지시한 사항도 다 적어놓죠. 앞으로도 메모하는 습관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2년여 동안 서울시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일을 해냈다. 심야 '올빼미 버스' 운행, 시민청 공간을 활용한 문화 생활 확충,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서울 둘레길 조성, 안심귀가서비스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2년여 만에 3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빚을 줄인 것은 놀랍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7조원가량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이미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년하례 때 '서울 탈환'을 모토로 서울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과 대적할 인물난에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불출마 의지를 거듭 밝힌 정몽준 최고위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권영세 주중대사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정말 서울시장을 원한다면 자리보다 먼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게 순서죠. 2030 플랜,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광산업, 서울 외곽 둘레길 완성,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명소 탈바꿈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야권 연대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봅니다."

박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의 기본 틀을 편안 해결을 통한 갈등 해소와 민생 확충, 미래 조성 쌓기 등 3가지로 정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그가 강조하는 점은 소통이다.

/김민준기자 minjun@metr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3월3일 '16년 만의 의료대란' 재연되나

의협 "대화 진전 없으면 총파업 강행" 정부 "대화하겠지만 불법파업엔 엄정 대처"

총파업 반대 의견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의협 총파업과 관련 한 브리핑을 하는 동안 파업 결정에 반대하는 팻말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지난 주말 출정식을 통해 총파업 강행을 결정하자 정부가 이에 즉각 대응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각 수체별 분과토의를 거친 종합토의를 통해 최종 투쟁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회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진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또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파업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 통보에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의료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다"고 의료계에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1일 의료계 총파업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총파업은 명분도 없고 불편만 초래한다. 명분 없는 파업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서발 KTX 민영화 등에 이은 의료 영리화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고 있다. 총파업의 원인이 된 의료 영리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국 새 추기경 염수정 대주교

교황 내달 각국 19명 서임

한국 천주교의 새 추기경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71·사진) 대주교가 임명됐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2일 염수정 대주교가 새 추기경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추기경 서임식은 다음달 22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즉위 후 처음이다.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2006년 정진석 추기경이 서임되면서 '2인 추기경 시대'를 열었으나 2009년 김 추기경이 선종한 데 이어 지난해 정 추기경마저 은퇴하면서 현재 현역 추기경이 없는 상태였다.

염 신임 추기경은 1943년생으로 80세 미만이기 때문에 교황 선출권도 갖는다. 1970년 가톨릭신학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12월 사제가 됐다. 이후 서울 불광동 성당과 당산동 성당 보좌신부로 사제 생활을 시작한 뒤 평화방송 이사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정 추기경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illegible]

겨울방학 맞아 붐비는 서울도서관 12일 오후 서울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 등 책을 읽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옛 시청사를 리모델링한 서울도서관은 일반도서 24만여 권, 전자책 8000여 종, DVD 등 비도서 4900여 종 등 방대한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5억 늘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 간 사전 조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실시 사전협의 제도도 구축키로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

/김선동기자

뉴스 & 뉴스

MB측 "상금세탁 보도 조치 없으면 법적 대응"

●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 세탁'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재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한시 폐지하자"

●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불임, 이젠 女보다 男탓

35~44세 남성 불임환자 여성의 5배… "늦은 결혼-업무 스트레스 때문"

국내에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남성 불임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1.8%, 여성이 2.5%로 나타나 남성에서 불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임 여성(20~49세)의 나이를 고려해 인구 10만명당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남성은 35~44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16.2%)했으며 45~49세(연평균 증가율 12.8%)가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 환자 수는 30~34세 여성(3658명), 35~39세 여성(1920명), 25~29세 여성(13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남성에서 불임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으나 남성 인자도 불임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남성 인자에 대한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 스트레스, 고령화, 잦은 음주 등도 남성 인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6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143억원이었다.

/황재용 기자

개막 초읽기 들어간 인제 빙어축제 겨울 축제의 원조 인제 빙어축제의 개막을 일주일 앞둔 12일 남면 소양호 상류의 축제장에서 빙어들 잡지 등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공기업 '복지 잔치'도 끝

장기근속 휴가 폐지되고 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도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이 폐지되고 영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 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 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3월까지 실행계획 제출해야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이재현 기자

다시 찾아온 한파 "우린 끄떡없어요" 1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북극곰 수영축제 참가자들이 찬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왼쪽). 2014 대관령 국제 알몸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눈보라를 헤치며 레이스를 펼쳤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15일 오전까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필로폰 230억원대 밀수

대규모 필로폰 밀수조직 수십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12일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비장파' 두목 정모(47)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은 마약왕'으로 불리던 오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kg 시가 230억원어치를 복대에 숨겨 들여와 중간 판매상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혜 기자

제대군인 위탁교육 협력 '맞손'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전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9일 2014년도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동신대학교 등 8개 기관 대표자와 제대군인 위탁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송도 케이블카 복원 본궤도

시, 사업 행정절차 4월 완료…5월 공사 나서

지난해 11월 27일 47년 만에 도개 기능을 회복한 영도다리에 이어 부산지역의 또 하나의 추억의 볼거리이자 즐길거리인 송도해수욕장 케이블카 복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송도해수욕장 케이블카 복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건축, 유원시설 및 기타 시설로 돼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안건을 오는 14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어 케이블카 정류장 설치 예정 지역인 서구 암남공원(협정소) 내 국유지의 무상 사용을 이달 중 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등 복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초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케이블카(길이 420m)는 1964년 설치돼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하며 관광객과 해수욕객의 인기를 끌었지만 1988년 해수욕장 쇠퇴와 시설 낙후로 철거됐다.

이번 케이블카 복원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된다.

복원될 케이블카 구간은 케이블카를 타고 송도해수욕장 일대는 물론 부산 남항과 영도 앞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송도해수욕장 남쪽 암남공원~북쪽 송도(송림)공원 1.62㎞다. 옛 구간과 비교해 4배가량 늘어난다.

이번 사업에는 5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기는 2015년 8월이다. /연합뉴스

올해 지역 신규 분양 1만9000가구

올해 부산지역에 굵직한 신규 분양 물량이 잇따를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신규 분양 물량은 모두 1만9000여 가구로 1만2000여 가구 수준이던 지난해 분양 물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더 티볼유' 1488가구를 이르면 3월께 분양한다.

더 더블유는 지하 4층~지상 69층의 초고층 건물로 당초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했다가 사업계획 변경 여부 등을 놓고 마찰을 빚은 끝에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가 자체 시공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12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래미안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시작한 삼성물산도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모두 1959가구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를 공급한다.

삼성물산은 주택 시장 경기 동향 감안해 이르면 상반기 중 아파트 분양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지구 아파트 288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부산지역 신규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올 하반기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인근의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도 SK건설이 1117가구 규모의 SK뷰 아파트를 하반기에 선보인다.

이 밖에 협성건설이 3월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명지협성 휴포레' 아파트 1664가구를 공급하고 동원개발도 올 하반기에 부산 북구 화명동에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1464가구를 분양한다.

동원개발은 올해 수영구 만덕동에서 840가구, 금정구 부곡동에서도 15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얼어붙은 부산 바닷가 10일 부산 최저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내려가 이번 겨울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부산 남구 오륙도 앞 바닷가 바위에 얼음이 생겼다. /연합뉴스

'햇살둥지' 임대 희망자 찾습니다

동래구 22일까지 모집…동당 최대 1800만원 지원

동래구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햇살둥지사업 임대 희망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햇살둥지'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방 학생과 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 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빈집의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 3단계 임대 희망자 공모 대상은 단독 부분 공가인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아파트 등이다.

지원 조건은 공가를 리모델링할 때 드는 총 사업비 3600만원 이내에서 동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는 지금까지 햇살둥지사업 임대 희망자 공개 모집을 통해 공가 4개 동을 선정,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햇살둥지 사업은 환경 개선은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3단계 임대 희망자 공개 모집에 공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51)550-4292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치매 전담경찰관 배치

부산의 모든 경찰서에 치매 노인을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고, 앰버경보를 활용한 실종 치매 노인 찾기 시스템이 구축된다.

부산경찰청은 치매(인지장애) 노인의 실종 예방과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에 치매노인 실종팀을 신설하고 15개 일선 경찰서에 치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치매나 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들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실종 위험이 큰 사람을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활용해 실종 사건 발생 때 신속하게 주변을 수색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2륜 전기스쿠터 순찰용 도입 부산 기장경찰서는 탄소 배출 걱정이 없는 2륜 전기스쿠터 '세그웨이' 1대를 청정원도시 내 국립치유원 순찰용으로 투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장경찰서 제공

영도다리 인근 '점바치 골목' 재정비

47년 만에 도개한 부산 영도다리를 가장 잘 볼 수 있어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 중구 '점바치 골목' 일대가 재정비된다.

부산 중구는 영도다리 일대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점바치 골목에 역사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보존이 가능한 부분은 살리면서 재정비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이곳은 낡은 판자촌 등이 슬럼화돼 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바치 골목은 6·25 피란시절 점집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피란길에 오른 이들이 '헤어지면 영도대교에서 만나자'고 했을 만큼 재회의 공간이었던 영도다리 인근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쳐주고 애환을 들어주는 점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는 50곳이 넘게 개업을 하는 등 성행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만이 남아있다.

'점바치'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점쟁이'라는 뜻이다.

구는 정비공사에 2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초재상가도 재정비하고, 영도대교 입구에 만남의 명소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더 신속하게"

시, 행동매뉴얼 재정비 완료…도시철도·환경오염 등 25가지 포함

부산시가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회적 재난 발생 시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등 현장 조치 방법이 수록된 행동 매뉴얼 재정비를 완료했다.

인적·사회적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예측이 불가능해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동 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는 부서·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매뉴얼을 다시 보완·정비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 및 국가기반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동 매뉴얼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행동 매뉴얼은 지난 10월부터 담당자 교육, 관련 기관(부서)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은 ▲도시철도 ▲대규모 환경오염 ▲가축 질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25개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과 현장조치, 지역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이번 행동 매뉴얼 정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행동 매뉴얼 보고회를 정례화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과제로 반영해 반복·숙달하는 등 신속한 상황 대처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구·군과 유관 기관에서도 재난 대비 매뉴얼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김종해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재정비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사고 발생 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ihk@metroseoul.co.kr

야구체험 스토리' 행사장 북적 지난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고 최동원 감독 추모 기념으로 열리고 있는 '2013 야구체험 스토리' 체험관에서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왼쪽) 선수가 행사장을 찾은 어린 팬에게 사인볼을 건내주고 있다. 이날 팬사인회에는 롯데 자이언츠 주장(기운데), 원폭식 코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정하균기자 ihk@

명절 증후군 우아하게 극복하세요

롯데호텔부산 '아빠의 선물' 테마 설날 패키지

매년 설 명절이 되면 명절증후군으로 지친 아내의 얼굴에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난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의 행복과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싶다면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물이라는 테마로 준비된 롯데호텔부산의 '설날 패키지'를 소개한다.

하이디럭스 룸 롯데호텔부산 제공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설날 패키지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선물',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선물'이라는 총 3개의 패키지로 나뉜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아빠의 사랑 패키지는 디럭스룸 객실에 설날 특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롯데시네마 관람권 3매가 제공되며 가격은 16만원이다.

아빠의 선물 패키지는 21만원으로 디럭스룸 객실에 라세느 조식 3인과 영국 프리미엄 코즈메틱 브랜드 러쉬(LUSH)의 입욕제 세트가 선물로 제공된다.

여유 있는 아침식사를 즐기며, 명절 동안 쌓인 피로를 향기로운 입욕제와 함께 풀어낼 수 있다.(세금 및 봉사료 별도)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선물 패키지는 29만원으로 디럭스 스위트룸 객실에 라세느 조식 3인, 더 라운지에서 준비한 겨울철 건강죽(단팥죽 또는 호박죽 중 택 일 가능) 3그릇, 영국 프리미엄 코즈메틱 브랜드 러쉬의 입욕제 세트와 롯데시네마 관람권 3매가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객실 내 과일과 간단한 쿠키 세트가 준비된다.(세금 및 봉사료 별도)

또한 명절 기간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청말띠 해 기념 롯데호텔 저금통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특히 말띠 고객에게는 티 소믈리에가 독창적으로 블렌딩한 디자이너 티 '티비론 티세트'를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롯데호텔부산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및 예약 (051)610-1100 /정하균기자

원전 안심도시 만들자

원자력안전실 신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원전에 대한 시민 불신과 불안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가 원전 전담 부서인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13일 현판 제막식을 연다.

원자력안전실 신설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없애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시는 기존 1담당 체제로 운영했던 원자력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실장(일반직 4급)과 2담당 직원 8명을 배치하고 도시개발본부장 직속으로 조직을 격상했다.

직원들은 ▲자체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과 분석결과 시민 공개 ▲주민 보호 시설과 장비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주민 보호대책 마련 ▲원자력시설 종합 방호체제 구축 ▲정부·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안전대책 촉구와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원전 소재 시·도와 원전 안전과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실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9시50분 부산시청 20층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실 출범을 축하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뉴시스

노래지도강사 도전하세요

부산 한국놀이문화협회는 20일부터 제18기 '노래지도강사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인노래지도강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 연수로 3개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된다. 한국놀이문화협회에 따르면 공인노래지도강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복지관, 병원, 노인대학, 백화점 등에서 노래지도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노래지도강사 노래지도교수인 가수 한수진, 자미곤 김성은 소장 그리고 김재국교수가 강사로 나서 노래 지도를 맡는다. 또 웃음건강박수의 창시자이자 협회의 회장인 조영준 박사가 레크리에이션 및 리더십 지도력 개발 수업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051)441-5511

푸틴에게 매달리는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미국도 질타 - 러시아에 정상회담 개최 등 구애 공세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모잠비크 마푸투의 공항에 도착, 현지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와 석탄 개발 등 자원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이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지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에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러·일 방위교류 증진을 위한 각서(방위교류 각서)'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다음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1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베 총리가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22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가을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양국 정부는 오는 31일 도쿄에서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러·일 국방장관회담의 합의 내용인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정례화, 항공자위대 수송기의 러시아 파견 협의 개최 등이 각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일정에 구체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22일 러시아를 방문하면 일본 시마네현이 같은 날 개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까지 더해져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일본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행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통해 국제 무대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동거남 대통령 의 염문설 뜨거운 언론 관심 - 佛 국민 11일(현지시간) 전 세계 주요 신문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 줄리 가예트의 염문설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실었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올랑드 대통령은 30년간 동거한 세골렌 루아얄과 헤어진 뒤 2010년부터 잡지사 기자 출신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해 '사생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게이츠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프란치스코 교황은 4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러시아 등 전 세계 13개국 1만38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게이츠(10.10%)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9.27%)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84%)과 프란치스코 교황(3.43%)이 그 뒤를 이었다.

게이츠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약 30조원의 금액을 기부하며 자선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사업에 힘쓰고 있다. 727억 달러(약 7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게이츠는 지난해 세계 최고 부자로 다시 등극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탕웨이 보이스피싱 당해 "수천만원 날렸다" 신고

영화 '색, 계'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탕웨이(사진)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수천만원을 날렸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탕웨이는 전날 상하이 송장 지역 공안 당국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으로 21만 위안(약 3681만원)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탕웨이는 11일 오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과 21만 위안이 그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된 것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탕웨이는 현재 송장 지역의 한 마을에서 영화 촬영 중이다.

/조선미기자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제법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나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판판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반성 족지발증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흩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비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26.54 (-7.07)	코스닥	510.19 (-1.40)
금리	2.91 (+0.01)	환율	1061.00 (-2.00)

"무료 체험이라더니…" 결제 피해 조심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문의했다가 반품을 거절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한 무료 체험 소비자 피해 상담 1952건을 분석한 결과 60.5%가 반품 거절이나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12일 밝혔다. 법과 제도(14.7%), 품질과 서비스(9.6%), 가격(2.7%) 등의 피해 상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상담 중에서는 무료 사용 기간에 대한 다툼이나 청약 철회 거부 등에 따른 상담이 47.6%로 가장 많았다. 반품을 거절(34.1%)하거나 문의만 했는데도 시용 상품을 발송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값을 카드 결제(5.4%)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국명기자 kmlee@

갑질과 동반성장 사이 '두 얼굴의 LG'

두 오너의 '정도경영' 신년사 진정성 의심케하는 사례들 비일비재

Issue&View
LG그룹 공공연한 갑의 횡포

/김태균기자 ksc1@metroseoul.co.kr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존중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도경영과 준법 실천은 사회와 고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올해 신년사에 내놓은 LG그룹과 LG전자 오너의 신년사다.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회사의 오너로 형제 사이다. 그만큼 그들의 한마디는 그룹 전체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LG그룹은 사회와 존중하는 기업, 정도경영 기업 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G전자, 영업점에 손해 떠넘기기

사례로 접어든 지 불과 얼마도 안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 441건,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의 경우 영업전문점에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LG전자가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오너가의 신년사는 정치인이 선거 때만 사용하는 수사인지 아니면 오너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행 조직이 따로 노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구호뿐인 'LG전자의 정도경영'

한때 LG그룹의 소위 '갑의 횡포' 사례는 심각했다. 특히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이 주력인 LG전자의 경우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적은 이익률을 '원가 절감'으로 메꾸는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희생을 분담토록 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2000년 중반 LG유플러스에 서비스를 납품해던 모 업체 사장은 "협력업체라는 이유 하나로 매출과 실적 등 모든 것을 LG유플러스의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경제민주화'의 요구로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LG그룹은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쏟아냈다. LG전자만 봐도 ▲지난 2011년 5월 '1·2차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다짐 ▲2012년 4월 '협력회사 간 공정거래,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2013년 3월 '2013 LG전자 동반성장 결의대회' 등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를 홍보해왔다.

이런 행태로 인해 오너들이 주창하는 대로 LG가 '사회와 존중하는 기업', '정도경영 기업'인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여심 흔드는 '웨딩드레스의 숲' 12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웨딩스코리아를 찾은 한 예비 부부가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1992년부터 개최된 웨딩스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박람회다. /연합뉴스

'최대 8000억 탈세' 악용 면세유 제도 전면개편

정부가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 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60%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 환경계획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박선옥기자 pso@

쑥쑥 크는 ETF시장…거래액 세계 4위

지난해 재테크 상품의 두톱
순자산 32% 늘어 19조 훌쩍
ELS도 47조여억 발행 '선전'

지난해 재테크 시장의 승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위험·중수익을 좇는 투자심리가 작용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ELT시장의 순자산총액은 19조4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 불어났다.

지난해 펀드 환매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식형펀드 잔고가 감소하는 속에서 ETF가 빛을 발했다. 주식형펀드 잔고에서 ETF의 순자산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까지 늘었다.

채권형 ETF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합성 ETF 등 신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자산운용사가 보수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ETF시장의 몸집이 커졌다. 연 평균 50%씩 성장을 거듭하며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랐다.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와 이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분산투자와 레버리지 효과 등을 두루 누릴 수 있는 ETF로 투자 수요가 쏠렸다.

코스피지수가 장기박스권을 상향돌파한다는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ETF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사상 최대 발행을 기록했던 ELS도 ETF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ELS 규모는 46조6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줄어들었다. 2012년 ELS 발행이 47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탓에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역대 발행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현정기자 hjkim@

로또복권 당첨번호 제584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7	9	11	32	35	3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028,610,507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56,350,292
3등	5개 숫자 일치	1,420,64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141 SK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은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07-2100
독자센터 02)721-9807

금융업계 "해외진출이 살길" 한목소리

저금리 기조에 국내 수익성 악화 ·신한·농협등 수장들 이어 금감원장도 '글로벌화' 주문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각 금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해외 진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업계가 해외 진출에 나서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금융업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금융업계 수장들에게 경영 체질 개선과 해외 진출 확대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금융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수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지화와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농업 생산과 유통 노하우의 기술력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농협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해외시장에 대한 열망 또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은 신년간담회에서 향후 해외 관매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외국 손보사를 인수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앞으로의 5대 중점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해외 법인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펀드 등의 수익 추구형 자산 등의 투자 대상 다각화를 통해 위험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정적 배당수익 취득이 가능한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해 신규 수익 기반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걸음마 단계인 금융사들의 해외 영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현지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수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더 많은 금융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8@metroseoul.co.kr

"전국 스키장에서 광대역 LTE-A 쓰세요" 전국 17개 스키장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는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밸리 스키장에서 '광대역 커피 트럭' 이벤트를 11일 진행했다. KT는 곤지암리조트, 지산리조트 등 5곳의 경기권 스키장에서는 광대역 LTE를, 하이원 스키장, 보광휘닉스파크 등 9곳의 강원도 스키장과 무주리조트, 충주 사조리조트, 양산 에덴밸리리조트 3곳에서는 LTE-A 망 구축해 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 제공

등골 휜 맹모 '도서관지교'

저렴·질 좋은 교육 제공하는 공영 문화·체육시설 낀 단지 선호 추세 타고 집값도 강세

그간 유명 학군과 학원가를 좇던 맹모들이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면서도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기르칠 수 있는 공영 교육·문화·체육센터 인근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시설 특성비보다 훨씬 저렴한 2만~3만원 정도로 다양한 운동과 학과 공부를 배울 수 있다. 또 공공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이에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경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강세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평촌신도시 은하수 신성아파트는 안양시 비산동 일대에서 3.3㎡당 매매가가 1352만원으로 가장 높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문화회관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동아 청솔 역시 바로 옆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시민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난 3년간 전용면적 59㎡ 기준 전셋값이 36.6%나 상승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 여건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곤 한다"며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는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y@

신흥국 서로 다른 '테이퍼링 몸살'

금융가 사람들

■ 대신증권 이진호 연구원

지난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인도네시아, 투피아화 와 인도 루피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통화로 꼽혔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올해 아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진호(사진) 연구원은 지난 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신흥국 금융시장은 시장의 우려만큼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테이퍼링이 신흥국 전반에 주는 영향은 완화됐으며 개별 국가 간 상이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양상은 대외수지 구조, 수출 의존도, 경제성장세 등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차별화 양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지난해 테이퍼링 이슈 기간 동안 나타난 경제 펀더멘털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내 높은 수출 비중(최근 1년간 84%)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가 순수출 개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높은 물가 부담으로 내수 회복세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민지기자 mk@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인문학 열풍, 다소 엉뚱"

현대카드 정태영(사진) 대표가 최근의 인문학 열풍과 관련, 자신의 소회를 트위터에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영을 위한 인문학이 열풍이라는데 다소 엉뚱하다"며 "기업에 필요한 건 인문학적 감성이지, 인문학 지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둘은 전혀 별개이고, 인문학적 감성과 인문학을 구별 못하는 것부터 심각한 감성 부족이다"고 지적한 뒤 "기하학적 디자인을 감상하자면서 기하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문학적 감성이라고 부르건, 지식융합이라고 부르건 간에 기업들이 갈구하는 것은 숫자와 성능으로만 경쟁하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더 상위적 개념의 경쟁을 위한 플랫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누가 인문학적 고민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인문학 수업을 들으러 간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그는 "인문학이 경영의 해답은 없다.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기기자

메시지 속 URL 노터치

사상최대 카드고객 정보 유출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 1급이 하락됐습니다 126.12.24X.12X"

다음달 전세자금대출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현준(36)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이 같은 문자메시지(SMS)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칫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갈지도 몰라 서둘러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더니 이통사에서 차단한 사이트라는 문구가 떠 한 번 더 놀랐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대형 카드사들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 같은 황당함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SM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안랩·이스트소프트 등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미싱 피해 예방법을 알아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받은 URL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금융사·우체국·관공서 등 대부분 믿을 만한 기관에서는 문자에 절대 URL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실수로 URL을 클릭해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앱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전화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을 금지로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다.

최근에는 PC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악성코드도 발견됐기 때문에 스마트폰 설정의 USB 디버깅 모드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전용 백신 사용도 필수다. 모바일 전용 백신의 실시간 감시를 켜놓고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스미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안랩 안전한 문자 등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사용자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통해 스미싱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랩·이스트소프트 관계자들은 "스미싱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자칫 방심했다가는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사전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아티브 북9 라이트'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블러시 핑크와 라임 그린 색상이 돋보이는 '아티브 북9 라이트' 노트북 신제품을 12일 출시했다. 아티브 북9 라이트는 SSD를 탑재해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갖췄으며 기존의 미네랄 애시 블랙, 마블 화이트 색상에 이어 블러시 핑크, 라임 그린 색상 제품을 새로 추가했다. /삼성전자 제공

저축은행·캐피털도 고객정보 유출 추정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이 13만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스포츠의 해' 고화질·대형 TV 잘나가네

온라인 판매 한달 사이 20% 이상 늘어나

다음달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2014년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는 해다.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 마켓에서는 벌써부터 대형·고화질 TV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요 온라인몰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T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주요 판매 제품 가운데 스포츠를 실감 나게 볼 수 있는 40인치 이상의 대형 TV와 고화질 풀HD TV 판매량은 같은 기간 각각 30%와 2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LED TV 판매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중소 브랜드 제품 판매는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마켓 TV 베스트셀러에는 중소 브랜드의 40인치 이상 제품이 다수 올라오는 등 대형 TV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옥션에서도 최근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LED TV의 판매량이 55% 증가했다. LG 3DTV(50인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LG LED TV(50인치)는 55% 판매가 늘었다. 중소 브랜드의 LED TV(50인치)의 경우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LG의 42인치 풀HD LED TV로 화질이 좋은 HD LED TV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삼성과 LG를 비롯해 중소 브랜드 TV 등 가전제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2014, 내 방에서 즐기는 세계 스포츠 대전'을 열고 있다. 옥션 가전전문관에서도 현재 가전제품의 특가 찬스 기획전을 벌이고 있어 다양한 TV를 최대 3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인터파크 쇼핑 디지털 가전팀 이영화 팀장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초부터 대형 및 고화질 TV 판매량이 눈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동계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빅 이벤트가 몰려 있어 가정에서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관련 가전제품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pma@metroseoul.co.kr

한우 '연도' 확인하고 사세요 홈플러스가 이번 설을 맞아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착한값 한우세트'에는 대형마트 처음으로 한우의 육질 등급 뿐 아니라 숙성 등에 따른 연도(軟度·연하기 정도)를 평가하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시스템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등급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홈플러스 제공

'영양만점' 간편식의 유혹

커피전문점 얼리버드족 겨냥 아침 메뉴 잇따라 선봬

새해가 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밥을 챙겨 먹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연초에는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려는 직장인들로 어학원이나 스포츠센터가 북비기도 한다.

커피전문점 업계는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영양' 면에서 든든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신메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채소를 주원료로 한 수프 죽, 연어샐러드 등으로 건강해진 메뉴들이 많은 것이 최근 특징이다.

할리스커피는 쫄깃한 바게트 빵 속에 담백한 양송이 수프를 담아 부드러운 빵과 함께 먹는 머쉬룸 수프볼을 선보이고 있다.

바빈스커피도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어 샐러드 컴비네이션, 프렌치 토스트 컴비네이션, 뉴욕 베이글 컴비네이션 등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던킨도너츠는 오리지널 커피 또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굿모닝 햄에그 잉글리쉬머핀, 훼스턴 오믈렛 잉글리쉬머핀, 할라피뇨 소시지 잉글리쉬머핀 등 총 4종의 모닝콤보 세트를 출시했다.

드롭탑도 양송이 스프(사진) 등 건강에 좋은 채소 수프 3종을 선보였다.

양송이 스프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버섯인 양송이를 재료로 사용해 고소한 양송이의 향과 맛이 크림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크림수프다.

양송이는 섬유질과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브로콜리치즈 스프'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리는 브로콜리와 풍부한 치즈 맛으로 여성들의 건강과 미용에 특히 좋다. '포테이토 스프'는 껍질껍질한 감자와 베이컨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짭잘한 맛이 일품이다. /정영일기자

올 외식업계 트렌드는 '전통의 재해석'

다섯가지 아름다운 한방차·현대풍 떡 메뉴 등 출시

올해 시작과 함께 외식업계에 심상찮은 '전통' 바람이 불고 있다.

식을 줄 모르는 한류 열풍에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살린 제품과 메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방차·전통주·전통 음식 등 이른바 '전통'을 콘셉트로 내세운 제품이 잇따라 출시돼 인기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 티 카페 '오가다'는 한국의 맛과 정서를 재해석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다섯 가지 아름다운 한방차'라는 의미를 지닌 이 업체에선 석류 오미자차, 생강 진피차 등 핸드메이드 한방차를 비롯해 제주 한라봉 주스, 청도 홍시주스, 제주 한라봉 빙수, 오미자 베리 빙수 등 국내산 천연 재료를 사용한 건강음료와 인절미 브레드 등의 한국식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다.

삼립식품이 운영하는 '빚은'은 전통 식품인 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떡 전문 프랜차이즈다. 이곳에선 송편·누닥떡·경단 등 전통 떡부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알맞은 영양 찰떡과 떡 케이크, 선물세트 행사 떡까지 다양한 품목을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 판매한다.

장년층 이상이 즐기는 전통주로 인식돼 있는 막걸리 또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인기를 입증하듯 젊은층 고객이 많이 찾는 맥주 전문점 압구정 봉구비어에서는 국순당의 신개념 캔 막걸리인 '아이싱'을 즐길 수 있다.

아이싱은 막걸리의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국순당이 'RTD(Ready To Drink)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가 4%로 낮으며 젊은층에 익숙한 자몽 과즙을 첨가해 상큼하고 새콤한 맛과 특유의 청량감이 조화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바람과 더불어 웰빙 열풍에 대한 관심이 2014년에도 이어지면서 맛과 건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메뉴들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며 "전통과 트렌디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젊은 고객층에게 감각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NS홈쇼핑 "설 음식 장만하고 선물 받으세요"

NS홈쇼핑이 TV 홈쇼핑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날 음식부터 차례상 준비까지 쉽게 준비하고 덤으로 선물까지 증정하는 '새해 복 많이 대잔치' 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와 별도로 설날 음식 및 차례상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일 오후 3시35분에는 삼주반건시를, 15일 오후 5시55분에는 사조해물만두, 16일 오후 6시35분에는 용대리황태, 17일 오전 11시35분에는 전철우 LA갈비 등 상품을 집중 편성해 방송한다.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은 점점 노화된다. 특히 우리 신체 중 관절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무릎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기온이 낮아지는 지금이 특히 힘든 시기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관절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무릎 통증 계속된다면 퇴행성관절염 의심해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존재한다. 연골이란 뼈 마디 끝에 위치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충격이나 압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이런 연골이 닳아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0%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환인 것이다.

사실 퇴행성관절염의 경우에는 예방이 어렵다. 특히 무릎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의 마모가 빠르게 진행된다.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된 이후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평소보다 적게 움직이게 된다면, 혹은 밤에 잠을 잘때나 추운 날씨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인공관절 수술,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 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상태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는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뼈와 뼈가 맞닿는 말기 상태가 되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연골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수술법이다.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으로 나뉘는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과 등산 등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수술받지 못해 질환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수술비 부담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 정도이며 양측 무릎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게다가 수술 전후의 입원비와 검사비 등이 추가로 부담된다. 수술을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니,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수술비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후원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아래의 사연과 본인의 증상 등을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무릎 통증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치료비가 부담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모든 분들에게 새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69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금연장을 통해 신청

건보료 1조7000억 축내는 담배

기고

황인찬 회장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흡연 인한 재정낭비 줄여 노인 틀니·치매 치료 등 고령 복지예산 투입해야

지난 [illegible] 말 담배 제배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모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재원이 5년간 약 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흡연 손실액 보전이 건강보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의 부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을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틀니, 노인 치매 등에 투입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청소년기 '거북목 증후군' 성장 방해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올바르고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불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일자목이라 불리는 '거북목 증후군'은 물론 목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과 척추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거북목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목이 뻣뻣해지며 어깨와 등에서도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저린 증상이 지속되도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신정연 청담튼튼병원 키우리성장클리닉 원장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잦은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거북목 아이들이 늘고 있다. 거북목은 성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북목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이대 슈바이처' 22명 베트남으로

2014 해외의료 봉사단 발대

이화여대 의료원이 지난 9일 '2014 해외의료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단원들은 각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베트남으로 떠난 봉사단은 전윤식 치과 교수를 단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및 선라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및 특강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 정구영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화의료원 해외의료 봉사단은 지난 1989년 네팔에서의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카드 The 착한 가격

롯데카드로 결제 시

랏츠버거 1+1

기간: 2014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대상: 롯데 신용, 체크 카드 회원(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지난달 이용 실적 무관 ※ 1인당 최대 4개 구매 가능 ※ 제휴카드 및 롯데멤버스 할인 제외

※ 멤버스 포인트 적립 가능 ※ 기타 할인 및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및 홈서비스는 행사 제외됩니다

LOTTE CARD

비듬 고민 털어내야 탈모 걱정 '털털'

깔끔한 첫인상 방해하는 '비듬' 없애는 습관
약용삼푸 꾸준히 사용하면 원인균 제거 도움

새로운 만남이 잦은 연초에는 외모와 복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패션 센스나 화려한 용모가 아닌 청결과 위생 상태다. 한 설문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 중 가장 거슬리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4명 중 1명은 '비듬, 눈곱 등 모습 등'을 꼽기도 했다.

멋지게 차려입은 외투 위에 '비듬'이라는 옥에 티가 있으면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만성적인 증상인 비듬. 이런 비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국으로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비듬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두피 내 곰팡이 증식으로 비듬이 생기는데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두피 건강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또 날씨가 건조해 두피가 메마르면 그만큼 비듬 발생감도 늘어나고 이를 방치하면 모발 건강을 악화시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듬을 없애려면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듬, 가루 및 두피 가려움 등 대표적인 비듬 증상이 나타나면 '니조랄'(한국존슨앤드존슨)과 같은 케토코나졸 성분의 약용 삼푸(비듬 전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반 삼푸로는 비듬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다.

특히 약국에서만 이런 약용 삼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루성 피부염을 동반하거나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삼푸는 '하루 한 번'이 적당

비듬이 많으면 머리를 자주 감아봐야 소용이 없다. 특히 겨울철 생기기 쉬운 건성 비듬의 경우 머리를 자주 감으면 두피의 수분 손실을 촉진시켜 오히려 비듬 증상을 악화시킨다.

더욱이 일반 삼푸로 머리를 감는 것은 비듬 치료에 큰 효과가 없다. 비듬이 있다면 약간 따뜻한 물로 모발을 충분히 적신 다음 약용 삼푸의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두피를 마사지하듯 가볍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

또 비듬은 단시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치료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다. 니조랄의 경우 주성분이 모발의 단백질과 결합해 일정 기간 동안 비듬 원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만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약용 삼푸를 한 달에 4회 사용한다면 비듬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겨울철엔 두피 보습도 중요

낮 동안 두피와 모발에 묻은 오염 물질이 비듬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푸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야 하며 두피의 머리카락을 잘 말리는 것만큼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피가 매우 건조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분팩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헤어 스프레이나 왁스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비듬은 지나친 스트레스나 다이어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 조절과 영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illegible] 기자

'천송이 화장품' 인기 활짝

드라마 '별그대' 전지현 제품 간접홍보 효과 대박

뷰티 업계가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배우 전지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2월 인기에 따르던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끌면서 주인공 천송이 역할의 전지현이 사용한 화장품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전지현이 병장염으로 아파하면서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큰 사진)이 방영된 직후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지현 립스틱'이라 불리고 있는 이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듀리마 렌버가 몸 루즈 로즈 갈리 칼라'(11번)로 발색력이 뛰어나고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지현이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한 멀티밤과 미스트는 한율의 자운단 보습 진정밤과 고결수 에센스 워터로 알려졌다. 한율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진한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 표현에 신경 쓰는 전지현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전지현의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씨가 극중에서 '입생로랑 베르니 아 레브르 틴트'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기도 했다.

/[illegible] 기자

명품·브랜드보다 스타일 빼기는 멋쟁이

올해 패션 키워드 '스웨그'

첫줄부터 명품 '에르메스'와 '프라다'를 패러디한 페이크 패션 제품, SPA 브랜드, 로고리스 백

경기 침체기 계속되는 가운데 패션업계에서 2014년을 주도할 키워드로 "스웨그(swag)"가 떠올랐다. 스웨그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트렌드 코리아 2014'에서 전망한 국내 10대 소비 트렌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힙합 유지션이 으스대는 기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스웨그는 한마디로 '멋지다' '뻐기다'라는 의미인데, 패션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명품을 패러디한 페이크(fake) 상품, 브랜드의 거품이 빠진 로고리스 백, 싸고 빠른 전환이 특징인 SPA 브랜드의 인기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스웨그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명품보다 튀는 나는 페이크 패션

스웨그 패션의 대표는 '페이크백'이다. 홍콩 패션 브랜드 전지백에서 시작된 이 페이크백은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되 반전을 통해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에르메스는 '호미스'로, 샤넬은 '채널', 꼼데가르송은 '꼼데라디온', 프라다는 '프라우드' 등으로 패러디되며 '진짜'보다 '가짜'가 더 잘 나갔다. 페이크 패션은 의도된 모방이라는 점에서 명품을 복제한 '짝퉁'과는 구별된다. 브라이언 리히텐버그, 스테레오 바이널즈 컬렉션 등 명품 패러디 브랜드들은 파격적인 테두리 안에서 패러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성향은 똑같은 명품백 대신 로고를 없앤 '로고리스 백'의 인기를 불러왔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명품 잡화의 평균 신장률이 6.2%인 반면, 로고리스 백으로 주목을 받은 핸드백은 전년 대비 15%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로고리스 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페르쉐, 지니킴 등이 있다.

더불어 값싸고 상품 교체 주기가 빠른 SPA 브랜드 역시 스웨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그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유니클로와 자라, H&M이 올 매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pjw@metroseoul.co.kr

럭셔리+스포티…오프로더 꿈의 동거

임의택의 차차차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부품 75% 이상 새로 설계
스틱 형태 커맨드 시프트
자체높이·도강 깊이에서
경쟁자 카이엔보다 월등
지형 맞춰 구동력 조절에
복합연비 10.6㎞/ℓ도 실현

'럭셔리'와 '스포츠'.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데 모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질적인 이 요소들을 매우 잘 융합시킨 차가 이번에 소개할 레인지로버 스포츠다.

랜드로버는 2011년에 스포티한 감각의 '이보크'를 출시했고 2013년 2월에 '올 뉴 레인지로버'를 출시한 바 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경쟁 모델로는 포르쉐 카이엔이나 BMW X6를 꼽을 수 있다.

차체 윗부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는 올 뉴 레인지로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차는 레인지로버와 비교할 때 75% 이상의 부품을 새로 설계할 정도로 구조가 다르다.

차체 높이는 1780㎜로 경쟁차인 카이엔(1705㎜)이나 X6(1690㎜)보다 다소 높지만 상급 모델인 올 뉴 레인지로버(1835㎜)보다는 낮다.

레인지로버보다 심플한 디자인의 대시보드는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도록 기울어져 있다.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 도어의 상단과 하단 손잡이, 시트, 인테리어 트림 마감재 등의 소재와 색상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차를 타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파워트레인은 V6 3.0ℓ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92마력을 낸다. 같은 배기량인 X6 30d(245마력)보다는 높고 X6 40d(306마력)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다. 엔진은 구형보다 한층 부드러워졌고 정숙해졌다. 주행 중 정지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진동을 느낄 일도 줄였다.

올 뉴 레인지로버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원형 컨트롤러인 '드라이브 셀렉트' 대신 스틱 형태의 커맨드 시프트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손맛'을 느끼며 운전하고픈 이들을 위한 배려다. 덕분에 패들 시프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일반도로에서 X6나 카이엔보다 덜 짜릿하지만, 오프로드에서는 동급 최강이다. 카이엔의 경우 핸소 자체 높이보다 최대 58㎜ 높일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35㎜까지 가능하다. 물길을 헤쳐나가는 도강(渡江) 깊이는 850㎜로 역시 동급 최강이다.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역시 이 차를 빛내주는 기술이다.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종류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듯이 자갈길이나 진흙길, 모래 등 5가지 종류의 지형에 맞게 레버를 맞추면 구동력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 차에 표시된 복합연비는 10.6㎞/ℓ이고 도심연비는 9.2㎞/ℓ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0.0㎞/ℓ의 연비를 나타내며 표시 연비와 거의 일치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매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차인 만큼 가격은 다소 비싸다. 3.0 디젤은 1억1680만~1억3690만원이고, 최근 추가된 가솔린 슈퍼차저 모델은 1억30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이보크보다 파워풀하고, 올 뉴 레인지로버보다 스포티하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½)

볼보 '콘셉트 XC 쿠페' 북미 오토쇼서 첫선

볼보자동차가 13일 개최되는 '2014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콘셉트 XC 쿠페(Concept XC Coup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향후 볼보자동차 크로스 컨트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콘셉트 XC 쿠페는 차세대 플랫폼 SPA(Scalable Product Architecture) 기반에 새 디자인 총괄 부사장인 토마스 잉엔라트(Thomas Ingenlath)의 디자인이 더해진 모델로, 대자연을 즐기는 스칸디나비안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프리미엄 크로스컨트리(XC)다.

외부 디자인은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 C 쿠페(Concept C Coupe)의 디자인을 계승해 더욱 스포티하게 발전시켰다.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 낮은 루프라인은 날렵한 실루엣을 만들었고, 4인승이지만 2도어를 적용해 역동적인 보디라인을 완성했다. 21인치 알로이 휠과 볼륨감 넘치는 보닛은 크로스 컨트리의 강인함을 표현했다.

/반도헌기자

<베스트셀링 준중형, 중형차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 쏘나타	1,470	1,570	1,610	1,800	2,050
	아반떼MD		1,240	1,200	1,410	1,520
기아	K5		1,530	1,690	2,130	2,000
	K3	-	-	-	1,600	1,620
	포르테	930	1,080	1,120	1,210	1,240
르노삼성	뉴 SM5 신형		1,280	1,460	1,750	-
	뉴 SM3	970	1,020	1,080	1,230	1,500
쉐보레	크루즈			1,400	1,500	1,660
벤츠	뉴C-클래스	2,980	3,090	2,570	3,730	4,130
아우디	뉴A4	2,530	2,640	2,100	3,320	2,840
BMW	뉴3시리즈	2,680	2,960	2,920	3,650	4,20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슈퍼카처럼 저돌적인 매력의 렉서스 RC F

렉서스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4 북미국제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렉서스 RC F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레스 콘퍼런스는 14일 오전 8시45분(현지시간)에 코보센터의 렉서스 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RC F에는 렉서스가 개발한 엔진 중 가장 파워풀한 450마력이 넘는 V8 5.0ℓ 엔진이 장착됐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또한 고속 안전성에 필요한 최적화된 스타일이다.

렉서스 RC F는 지난 11월 도쿄모터쇼에서 공개된 뉴 RC 쿠페를 기반으로 한다. 넓은 휠과 타이어, 액티브한 리어 윙, 에어스쿱, 쿨링 덕트와 탄소섬유 컴포넌트는 기능적인 아름다움으로 렉서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렉서스 RC F의 수석 엔지니어 유키히코 야구치(Yukihiko Yaguchi)는 "보닛 안의 독특한 공기 출구와 전면 펜더의 뒷부분은 엔진 냉각과 안정성, 핸들링을 최적화하기 위해 디자인됐으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외관에서는 렉서스 고유의 스핀들 그릴이 눈에 띈다. 보닛은 RC보다 더 높고, 프런트 범퍼와 펜더 아래 덕트 에어로 다이내믹 스태빌라이징 핀은 F 모델만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전면 펜더 뒷부분의 공기 출구는 측면 문을 연장선과 연결돼 L자 모양을 만들고, 4개의 사다리꼴 머플러는 공격적이다. RC F는 렉서스 슈퍼카 LFA의 디자인 요소를 계승했다. 액티브 리어 윙은 정지 시 무게의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80㎞/h에서 펼쳐지고 40㎞/h의 속도에서는 접힌다.

RC F의 계기판, 스티어링 휠, 시트, 장식, 페달은 모두 독특하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4가지의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는 중앙 다이얼이 중심을 이룬다. 디스플레이의 색과 텍스트의 크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RC F는 패들 기어 시프트를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렉서스 최초로 횡단면이 타원형인 굵은 그립의 스티어링 휠을 채택했다. 또한 F 문양이 새겨진 헤드레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하이백 시트는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운동복을 연상시킨다.

/정영선기자

노출 없어도 섹시 '6명의 김완선'

'B.B.B'로 상큼 벗고 성숙 입은

달샤벳

항상 상큼함을 간직할 것 같았던 그들이 달라졌다. 벌써 7번째 미니 앨범 'B.B.B'로 돌아온 걸그룹 달샤벳이다.

데뷔 후 상큼한 매력으로 '군통령'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한층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기존 걸그룹들의 섹시 콘셉트와 차별화를 뒀다. 직접적인 노출은 최소화하고 몸에 붙는 의상과 화려해진 퍼포먼스를 선택했다.

◆ '제2의 김완선' 꿈꾸다

앨범 타이틀곡 'B.B.B'는 히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곡이다. 흥을 돋우는 복고풍의 신스팝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이다.

무대 위 이들의 모습에서는 1990년대 초반 독특한 음색과 퍼포먼스, 섹시한 매력으로 가요계를 흔들었던 김완선의 모습이 잘 묻어났다.

리더 세리는 "신사동호랭이가 'B.B.B'를 주면서 여섯 명의 김완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해 당시 김완선 선배님의 자료 화면을 보면서 창법을 열심히 연구했다"며 "김완선 선배님의 창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섹시한 톤을 지니고 있어 이를 따라 하고자 호흡을 많이 빼서 불렀다"고 전했다.

◆ 몸으로 완성된 섹시美

독특한 창법과 눈빛, 화려한 퍼포먼스로 섹시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은 남다른 노력을 했다. 특히 달샤벳 멤버들은 몸에 붙는 보디슈트를 입어 노출 없이도 충분히 자극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자율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식단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기 때문에 평소 하지 않았던 근력운동을 하루 평균 2시간가량 했다"고 말했다.

신곡 안무와 관련해 가은은 "우리만의 차별점은 섹시와 카리스마 도도인 것 같다"며 "섹시보다는 카리스마에 중점을 두려고 무대에서의 안무 동선에 집중했다. 은근한 섹시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희는 "퍼포먼스나 군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 팔 쓰는 동작이 많아서 팔 근육이 생기는 것도 같더라"며 "'속삭해춤' '너춤' '힙업춤' 등 안무 포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보디 슈트에 화려한 안무
> 사운드는 복고풍 신스팝
> 완선선배 창법 따라하려
> 호흡 많이 빼서 불렀어요 ”

◆ 데뷔 4년차 본격 해외 활동

2011년 '수박두피디바'로 가요계에 등장해 '있기없기' '미스터뱅뱅' '내 다리를 봐' 등을 히트시키며 올해 데뷔 4년차가 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급함보다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들의 목표 또한 남달랐다.

아영은 "쇼케이스를 앞두고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우리 노래를 함께 불러줬다. 그동안 국내 활동에 집중했는데 앞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수빈은 "변함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올해는 팬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수빈은 음악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선보인 수빈은 "기회가 있다면 연기나 예능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정영윤기자 yyw@metroseoul.co.kr

/디자인 박은지

독특한 소재·찬란한 배우 연기 통했다

'별그대' 인기몰이 분석

톱스타·외계인 사랑 다뤄 전지현 코믹 열연도 일품 로코+판타지 재미 더해

김수현(사진 오른쪽)·전지현(왼쪽) 주연의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한 데 이어 8회까지 방송된 현재 25% 가까이 시청률이 치솟는 등 빠른 속도로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최근 강경옥 작가의 인기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드라마의 인기는 OST가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가요계에도 번졌다. 12월 기준으로 지니·올레 뮤직·엠넷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 케이윌의 '별처럼'과 린의 '마이 데스티니'가 꾸준히 톱 5에 머물고 있다.

주연배우들이 극중 선보인 패션이나 소품도 불티나게 팔린다. 백치미 넘치는 도도한 톱스타 천송이를 연기하는 전지현이 선보이는 것은 의상부터 선글라스·구두·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400년 전 지구로 온 외계남 도민준을 연기하는 김수현이 걸치고 나온 슈트와 넥타이도 완판 행진이다.

가요계와 패션계뿐 아니라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수현이 극중 틈틈이 꺼내 읽는 동화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은 2009년 출간됐을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드라마에 비춰진 후부터 날개 돋친 듯 팔려 최근 3만 부 이상 판매됐다.

인기 돌풍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판권이 중국에 역대 최다 최고가로 팔린 데 이어 4회까지 공개됐을 당시 현지에서 방송 다운로드가 1억 뷰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썼다.

 # 독특한 스토리와 주연배우 열연

이 같은 인기의 배경은 흥미롭고 독특한 스토리와 스나심나 연기력을 겸비한 주연배우의 힘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작품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청률 40%를 넘은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가 집필을 맡고 '해를 품은 달'로 대세남으로 떠오른 김수현과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전지현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방영 후에는 기대에 걸맞게 톱스타와 외계인의 사랑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흥미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면서도 도민준이 시간을 멈추는 등 초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해 판타지에서 오는 재미를 더했고,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참신한 에필로그를 삽입해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김수현은 특유의 묵직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연기로 외계남을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그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전지현은 한껏 망가지면서도 아픔을 지닌 톱스타 역할을 물오른 연기력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지현은 물론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한류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박해진까지 천송이를 사랑하는 순정남 이휘경 역으로 가세해 해외 인기에 불을 지폈다.

이 밖에도 시간을 멈추거나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등 영화 같은 영상미를 선보이는 연출력까지 모자람이 없다는 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영기자 (e0427@metroseoul.co.kr)

"정준일, 기대되고 두려운 존재"

그의 컴백 앞두고 대세 뮤지션 칭찬 이어져

음악성과 재능을 겸비한 대세 뮤지션들이 싱어송라이터 정준일(사진)의 컴백에 한 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16일 출시되는 정준일의 정규 2집 '보고싶었어요' 티저 영상에는 유희열·윤종신·조정치 등이 출연해 정준일의 음악에 대한 견해와 재치 넘치는 코멘트를 담아 눈길을 끈다. 음악 하이라이트와 영상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티저 영상과 달리 동료 뮤지션들의 인터뷰만으로 제작돼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유희열은 이 영상에서 "제일 기대되고 두렵기도 한 존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외에 모델 겸 가수 장윤주, 모던록 밴드 디어클라우드, 엔지니어 강효민,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베이시스트 서영도, KBS 라디오 유상현 프로듀서 등의 인터뷰도 티저 영상에 실렸다.

이번 앨범에는 국내 최정상급 세션인 서영도·홍준호·신석철 외에도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 20인조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또 맷 에스니, 유이치 사키모토, 마이클 브레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한 강효민 엔지니어가 함께해 화제를 모은다.

3인조 밴드 메이트의 보컬리스트 겸 건반 연주자 출신으로 2011년 11월 솔로 1집을 발표한 정준일은 군 제대 후 컴백작으로 2년2개월 만에 새 정규앨범을 출시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고백'을 비롯해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10곡의 음악이 실린다.

/장순호기자 [illegible]

비, 월드뮤직어워드 5개 부문 후보에

가수 비(사진)가 월드뮤직어워드(WMA) 5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12일 WM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는 신곡 '30섹시'로 총 37개 시상 부문 중 '월드 베스트 송' '월드 베스트 뮤직비디오' '월드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월드 베스트 라이브 액트' '월드 베스트 엔터테이너' 등 총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소속사 큐브DC는 "4년 만에 컴백한 비가 1주일 만에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후보로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정규 6집을 발표하고 컴백과 동시에 1위에 오른 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입증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온 비는 이번 음반 발표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를 촬영하는 등 분주하게 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9년 시작된 월드뮤직어워드는 별도의 심사위원은 없으며 음반 판매량과 팬 투표로 수상자가 가려지는 팬 중심의 시상식이다.

'월드 베스트 송'에는 비 외에도 트러블메이커·다비치·박지윤이 후보로 올랐다. '월드 베스트 뮤직비디오'에는 싸이와 다비치·2NE1이 이름을 올렸고, '월드 베스트 피메일 아티스트' 부문에는 현아와 아이유가 후보로 올랐다.

대세 아이돌 엑소를 비롯해 빅뱅·2PM·2NE1은 '월드 베스트 그룹' 후보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합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성룡 액션이 돌아온다

'폴리스 스토리' 29일 개봉

'명절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성룡이 올해 설 연휴에는 신작을 들고 돌아온다.

성룡의 액션 시리즈 '폴리스 스토리'의 완결판 '폴리스 스토리 2014'(사진)가 이달 29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는 긴장한 표정으로 적을 향해 비장하게 총을 겨누고 있는 성룡의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

이 영화는 강력계 형사 종 빈장(성룡)이 하나뿐인 딸(징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적의 인질이 돼 범죄를 소탕하는 과정을 그린다. 지난달 24일 중국에 먼저 개봉해 첫날 1160만 달러(약 123억760만원)의 흥행 수익을 올려 성룡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이어 개봉 2주차인 5일까지 7231만 달러의 누적 흥행 수익을 거뒀다.

'차이니즈 조디악' '뮤런 용형호제' '러시아워' 등에서 리얼 액션 연기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성룡은 이번에 한층 더 진화한 맨몸 액션을 선보인다.

한편 '전국' '천하영웅의 시대' 에서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중국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여배우 징징이 성룡의 극중 하나뿐인 딸 바오 역을 맡아 역대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를 빛낸 장만옥과 양채니의 뒤를 잇는다.

/이지현기자

'스무살 할매' 웃음·감동이

뻔한 소재지만 '깊은 울림'— 욕설 연기 눈길

film review

■수상한 그녀

사람들은 "당신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이들이 청춘의 싱그러움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스무 살 무렵을 꼽지 않을까 싶다.

22일 개봉될 영화 '수상한 그녀'는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순(나문희·사진 왼쪽)이 꽃처럼 예뻤던 스무 살로 돌아가 빛나는 전성기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실의에 빠진 오말순은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에서 영정사진을 찍고 나서 스무 살 시절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후 오두리(심은경·오른쪽)로 이름을 바꾼 뒤 이웃집 박씨(박인환), 방송국 훈남 PD 한승우(이진욱)손자인 반지하(진영)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릴 적 꿈인 가수로 데뷔한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설정은 최근 드라마에서 잇따라 등장해 익숙한 소재다. 그러다 이 영화는 뻔한 소재라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잘 포장해 충분한 재미를 준다. 새파랗게 어려 보이는 오두리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차진 욕을 구사하며 로맨스를 엮어가는 전개가 웃음을 자아낸다.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지만 가볍지 않은 메시지도 녹아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황동혁 감독이 이번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인 경시 풍조를 꼬집는다.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담거나 자식을 위한 희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두리라는 존재를 통해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꿈을 꾸던 젊은 날이 있었음을 말해주며 세대를 따뜻하게 하나로 묶는 힘을 보여준다.

오두리로 분한 심은경의 매력도 빛을 발한다.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 로 차세대 스타를 예고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첫 작품인 이번 영화에서 '제2의 문근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나문희는 할머니인 오두리를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며 약 두 시간의 러닝타임을 이끌고 나간다. 비록 코믹 연기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촌스러운 옷을 입고서도 깜찍하게 윙크하는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다. '나성에 가면' 등 1980~90년대 추억의 가요들을 재해석한 곡들을 직접 부르며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까지 뽐낸다.

연기파 중견 배우 나문희 박인환의 연기는 말할 나위 없고 '대세남' 김수현까지 깜짝 등장해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한다.

10대부터 70대까지 삼대가 다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어 설날 개봉작으로 적당하다. 15세 관람가.

휴스턴 딸, 의붓 오빠와 결국 결혼

할리우드에 한국 연방극장에서나 보던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다.

고 휘트니 휴스턴과 바비 브라운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사진 오른쪽)와 의붓아들 닉 고든(왼쪽)이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은 11일(현지시간) "크리스티나와 고든이 10일 애틀랜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외할머니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든은 휴스턴이 생전 입양을 통해 얻은 양아들이다. 고든과 크리스티나는 함께 성장했으니 2012년 휴스턴의 사망 직후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해 약혼한 사실까지 알려져 가족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박선영기자

앤더슨, 세번째 남편 살로몬과 재결합

원조 글래머 스타 파멜라 앤더슨(사진)이 전남편 릭 살로몬과 재결합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외들에 따르면 앤더슨은 최근 살로몬과 재혼했다. 그 증거로 손에 큰 반지도 착용했다. 앤더슨은 "우리 가족은 지금 매우 행복하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고 재결합을 인정했다.

그는 2007년 살로몬을 세 번째 남편으로 맞았으나 결혼 60일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며 재결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지현기자

불법파일 유출 악재 만난 '변호인'

최단 1000만 돌파 눈앞

영화 '변호인'(사진)이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불법 파일 유출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 NEW는 11일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 유출됐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이른바 '캠'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초 유포자와 불법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변호인'의 출연진과 감독이 무대인사 중 관객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변호인'은 11일까지 누적 관객 수 895만2845명을 기록해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대통령의 '소통'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최대 관심사는 역시 '소통'이었다. 물론 답변 국정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해 여야 관계를 지켜본 국민들의 관심은 얼어붙은 정국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모아졌다. 회견 도중 소통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은 "원칙에 어긋나는 입장에서 소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말이라도 때로는 살펴야 바람직하다. 최근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나 상임고문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정무장관을 새로 둬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은 냉각된 정국을 대통령이 풀지 않고서는 국정 난제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은 국회가 거의 식물 상태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올해는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의 첫해가 된다. 경제혁신의 핵심을 이루는 공공개혁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할 소지가 많다. 코레일 파업에서 볼 수 있듯 노사 관계가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한 차례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해 집단 간에 밥그릇 싸움이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난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풀어야 하고 특히 야당의 협력이 따라야 가능하다. 지난 어두운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소통의 채널을 가동시켰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국가기관을 통해 귀를 열어놓았다. 여기에다 집권 내내 각계각층과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하며 민심을 살폈다. 기업인과 근로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속마음을 읽는 데 열성을 보였다. 물론 집권 말기에는 그렇지 못해 비운을 맞았다는 평가는 있다.

이제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은 물론 참모들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의 존재 의미도 희미해진 지 오래다. 정치는 원칙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타협이 이뤄져야 생동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국민이나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소통이 이뤄져 불통의 이미지를 씻어야 국정의 순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지만 한비자(韓非子)가 말한 "법치의 완성은 정치의 목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포토프리즘

대체 누구시길래?

국내 일정을 마친 류현진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출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인터뷰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첫 출국 당시 "내년에는 더 많은 취재진이 공항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류현진은 이날 유난히 밝은 조명으로 인터뷰에 임해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김연아만 있나요?"

뉴스룸에서
유순호
<연예스포츠부 차장>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번 김연아 신드롬이 불어올 조짐이다.

이달과 지난달 차례대로 열린 국내외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뽐낸 김연아는 올림픽 무대에서 이변이 없는 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민들은 그가 펼칠 아름답고 완벽한 경기를 만끽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김연아에 향해 있는 요즘 소치 올림픽을 향한 소중한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변방 중의 변방으로 취급돼온 썰매 세 종목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의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제대회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봅슬레이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최초로 올림픽 티켓을 따냈고, 루지에서도 사상 최초로 4종목에 모두 출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세계 톱 10의 기량을 보이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제대로 된 경기용 썰매는 물론 정식 트랙조차 없이 훈련해왔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표팀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전문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점이다.

봅슬레이 남자 대표팀 에이스 원윤종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여자 대표팀 파일럿 김선옥은 육상 단거리 선수로 뛰다가 2년 전 이 길로 접어들었다. 루지의 최은주와 박진용은 2010년 호기심 반으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대표가 됐고, 성은령은 4년 전까지 루지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선수다.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은 1년 반 전만 해도 평범한 고교생이었다.

한마디로 무모하리만큼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앞만 보고 내달려 반전의 기적을 일궜다. 이들의 리얼 스토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가와 같다.

저성장 시대,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높아만 가는 취업 문턱 앞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불행한 현실에 놓여있다.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 달린 썰매를 타고 훈련해온 선수들은 이 같은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썰매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올인한 이들은 이미 올림픽 금메달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김연아가 주지 못할 그들만의 감동 드라마가 벌써 소치 올림픽을 기다리게 한다.

중세의 가을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좁은 골목 사이 저편에는 성인(聖人)들의 조각이 정밀하게 배치된 성당의 지붕이 홀연 나타나고, 거리에는 체리 와인을 팔거나 레스토랑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들이 예쁜 명찰처럼 달려있다.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의 유적이 현대와 공생하면서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대학촌 살라망카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까닭이다.

사실 유럽의 보려된 도시에서는 보기 드물지 않은 풍경이다. 그런데 살라망카가 특히 주목되는 까닭은 여기가 중세 유럽의 지식을 대표하는 산실이었고, 지금도 그 시절의 지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순례자들을 위한 수도원은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책을 존중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황홀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흔히 서양의 중세는 '암흑'으로 표현되고, 철저하게 허물어져야 하는 역사의 돌덩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고단하고 억압되고 출구가 없는 막막한 삶처럼 존재하는 족보를 얻고 있기조차 하다. 물론 근대 이전의 야만은 결국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그의 저작 '중세의 가을'에서 말했듯이, 중세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인문학적 교양과 문화적 깊이를 쌓아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익고 익어 숙성됐을 때 르네상스를 거친 유럽은 근대라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6세기에 시작됐던 한 시대는 천년의 무게를 만들어내고는 마침내 저물었지만, 그 열매는 세월이 흐른 만큼의 진액을 지금도 여전히 뿜어내고 있다.

회화사를 봐도 그렇다. 중세의 궁정미술과 성당의 권위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산치오 없고, 이후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엘 그레코 없이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태어나지 못하며, 벨라스케스 없이 고야가 어디 있겠으며, 더더군다나 파블로 피카소는 황량한 들판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중세는 현대도시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선의 역사가 만들어낸 거리와 터는 토벌되다시피 했다. 중세의 깊이를 복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령 경복궁과 삼청동 한옥마을이 있는 일대에 조선시대 서고(書庫)처럼 전통 가옥으로 된 도서관 하나 있다면,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품격은 사뭇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걸 상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혼이 근본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다.

의협,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기자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 소식이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진료까지 거부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출정식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의협은 국민을 설득해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 파업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실행 여부는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되는데 파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 의료계에는 '진료=생계'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정식에서는 파업에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의사들도 있었고 피켓을 들고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직접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전달하는 의사들도 종종 보였다. 게다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은 종합병원과 개원의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파업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진료가 직접적인 생계로 이어지는 개원의의 경우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봉직의나 전공의 등은 파업을 지지해도 회사(병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파업 동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면 투쟁에 나서며 파업을 결정한 의협이 파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골 넣고 1골 돕고 기찬 'Ki'

기성용 풀럼전 리그 2호골 시즌 1호 도움 ·김보경·이청용 풀타임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 AFC의 기성용(25)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성용은 12일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풀럼 FC와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1분 추가골을 넣었다. 세트 피스 상황에서 애덤 존슨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낮게 내준 볼을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네트에 꽂았다.

지난달 18일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강호 첼시 FC를 상대로 극적인 연장 결승골로 잉글랜드 무대 첫 골을 신고한 기성용은 9일 뒤인 27일 에버턴 FC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리그 데뷔골도 성공시켰다.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뒤 1년 4개월간 골 갈증을 느끼던 기성용은 이날 골까지 20여 일 동안 3골을 몰아 넣으며 빅리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성용은 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골 지역 오른쪽에 있던 애덤 존슨에게 정확한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존슨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면서 팀에 세 번째 골을 안겼다. 기성용이 기록한 시즌 1호 도움이다.

4-1로 대승을 거둔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이자 최다 점수 차 승리를 거뒀다. 순위도 최하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편 카디프시티 FC에서 뛰는 김보경(25)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전에서 풀타임 활약했다. 그러나 팀의 0-2 패배를 막지 못했다.

선덜랜드 AFC의 기성용이 12일 풀럼 FC와의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뒤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잉글랜드 챔피언십 볼턴 원더러스 FC의 이청용(26)은 노팅엄 포레스트 FC전에 선발 출전해 90분간 뛰었다. 후반 2분 제이미 패터슨에게 선제골을 내준 볼턴은 후반 30분 마뉴 뮐스가 한 골을 만회하며 노팅엄 포레스트와 1-1로 비겼다.

임대를 끝내고 퀸스파크 레인저스 FC로 복귀한 윤석영(24)은 입스위치 타운 FC전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봅슬레이 4인승도 첫 金

소치행 티켓 사실상 확정

한국 봅슬레이가 남자 4인승에서도 사상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석영진, 전정린, 브레이크맨 서영우로 구성된 남자 4인승 대표 A팀은 12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1분53초5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봅슬레이가 4인승에서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원윤종이 조종간을 잡고 아메리카컵에서 사상 첫 우승한 이후 한국은 1년간 아메리카컵에서 2인승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봅슬레이팀은 이번 경기 결과로 4인승에서도 소치행 티켓을 사실상 손에 쥐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은 이달 20일 국가별 올림픽 출전권을 공식 발표한다. 봅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티켓을 얻게 됐다.

한편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같은 날 미국 파크시티에서 열린 대륙간컵 7차에서 1분38초7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6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순호기자

12일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 출전한 한국 봅슬레이 남자 4인승의 원윤종, 석영진, 전정린, 서영우(왼쪽부터).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제공

'약물 복용' A-로드 162경기 못 뛴다

미국프로야구(MLB) 최고액 연봉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스(39·뉴욕 양키스·사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결국 2014시즌을 통째로 쉴 위기에 처했다.

MLB 사무국과 로드리게스 중재인은 프레드릭 호로위츠 위원은 12일 로드리게스에게 16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정규리그에 한 경기도 뛸 수 없고, 양키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해도 출전할 수 없다. 로드리게스의 나이를 감안할 때 1년 출전금지는 사실상의 은퇴 통보나 마찬가지다.

로드리게스는 곧바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211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 곧바로 항소해 잔여 시즌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중재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노화 방지 클리닉인 바이오 제네시스에서 금지약물의 일종인 경기력 향상 물질을 불법으로 오랜 기간 구매했다. 또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재위는 로드리게스가 2001~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지약물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사상 최대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동안 연방법원이 MLB 중재위의 결정은 거의 뒤집지 않았던 관례를 볼 때 로드리게스가 구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로드리게스는 2017년까지 양키스로부터 2억75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양키스는 로드리게스의 징계가 확정되면 올해 연봉 2500만 달러(약 265억원)를 아껴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를 영입하는 데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이광종호 요르단과 무승부…수비 보완 시급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대표팀은 11일 오만 무스카트의 로열 오만 폴리스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임창우(울산 현대)의 자책골과 만회골이 이어지며 힘겹게 승점 1을 기록했다. 임창우는 전반 31분 아흐마드 살레흐의 골을 문을 날려 막아내려다 우리 골 안으로 넣고 말았다. 그러나 임창우는 12분 뒤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시키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은 예선에서 4전 전승, 13골을 넣은 복병 요르단을 맞아 시종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 요르단의 한 박자 빠른 공격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뚫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13일 오후 10시 같은 곳에서 미얀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AFC U-22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16개국이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유순호기자

조성민 자유투 신기록…한 경기 18점

부산 KT의 조성민이 프로농구 한 경기 국내선수 자유투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조성민은 12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자유투 18점을 포함해 26점을 넣었다. 조성민의 활약을 앞세운 KT는 원주 동부를 81-67로 꺾고 동부 전 6연승을 달렸다.

인천 전자랜드는 서울 삼성을 75-70으로 꺾고 4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에는 인천 역대 최다인 9011명의 관중이 몰렸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2일

팀	1Q	2Q	3Q	4Q	합계
KT	23	17	22	19	81
동부	11	23	16	17	67
전자랜드	10	30	21	14	75
삼성	18	14	12	26	70
KGC	21	23	22	17	83
SK	18	20	19	22	79
삼성생명	18	11	12	12	53
우리은행	21	10	19	26	76

프로배구 전적 12일

홈			원정
한국전력	2	3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0	3	기업은행

다시 뭉친 월드컵 4강 신화 주역들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12일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만났다.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히딩크 감독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하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고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열린 오찬 행사에는 김태영 이운재 윤정환 송종국 최진철 유상철 이영표 등 2002년 주전 선수들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참석했다. 홍 감독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www.1588-2089.com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장 방문교육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드립니다.

- 교육비용, 강사비용 전액 무료!
- 일정 : 2014.1.20.(월)~ 연중
- 필수 :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 선택 : 성희롱 예방교육 or 최신 노동법 이슈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장에서 스스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 www.1588-2089.com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88-2089!

비정규직 차별!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상의하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